

# 한국 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

## Application of the Options in DDC 21 to Korean Lib.

여지숙 · 오동근,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Yeo Jee Suk · Oh Dong Geun, Dept. of Lib. & Inf. Sci. Keimyung Univ.)

DDC에서 임의규정은 문화적, 지역적인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DDC에서 재 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임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 전개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분류표의 지시를 근거로 해서 개개의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 전개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규정의 유형과 한국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시안을 제시하였다.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76년 Melvil Dewey에 의해서 초판이 발행된 이후 1996년 21판까지 발행된 DDC는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이다.

그러나 DDC는 영어권 위주로 만들어진 분류법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 국가에서는 그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DDC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도서관들은 한국과 관계되는 항목들을 재 전개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원표의 번호의 뜻을 고쳐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 DDC에서는 “원표의 번호는 어떠한 명백한 지시 없이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끼워서 쓰지 말 것”<sup>1)</sup>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DDC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임의규정(options)을 마련하고 있다. 임의규정은 도서관의 장서에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표와 보조표에 제시된 번호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DC 임의규정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2 용어의 정의

임의규정은 영어의 “Options”에 대한 번역어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통일된 명칭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임의규정이란 “표준기호법의 우선적인 처리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장서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본표와 보조표에서 제공되는 표준기호법에 대한 대안(代案)”<sup>2)</sup>이다.

### 2. DDC 임의규정의 유형

#### 2.1 내용·목적에 의한 임의규정의 유형

##### 2.1.1 관할구역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분류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을 강조하려 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각 국가에서 자국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061에 있는 임의규정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일반조직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061에 강조할 지역의 일반조직을 두게 한다. 이 경우 061에 있던 북미의 일반조직은 068.7로 옮겨진다.

##### 2.1.2 인종·민족·국가군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특정 그룹을 강조하거나 간략화 기호를 주기 위해서 제공된다. Table 5의 -1에 있는 임의규정은 -1에 강조할 각각의 인종·민족·국가군을 두고, 이 번호에 있던 북아메리카 민족은 -2에 통합되도록 지시한다.

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vol. 1 (N. Y. : Forest Press, 1971), 95.

2)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21. vol. 1, (N.Y.: Forest Press, 1996), lxii.

### 2.1.3 특정 언어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이 임의규정은 분류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특히 400s와 800s에서 많이 나타난다. 410에 있는 임의규정은 강조하려는 언어에 대해서는 410의 번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400에 언어학(Linguistics)을 옮기도록 제안한다.

### 2.1.4 토픽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거나 주제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제시된다.<sup>3)</sup> 200 종교류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특정 종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5개의 임의규정이 제공된다.

### 2.1.5 구체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780 음악(Music)에 있는 임의규정은 같은 번호 내에서 악보, 가사, 레코딩을 구별하기 위한 임의규정이 제시된다. 이 경우 바이올린 악보(scores for violin)는 M787.2에, 레코딩은 R787.2 또는 MR787.2에, 소형악보는 MM787.2의 번호를 가지게 된다

## 2.2 형식에 의한 임의규정의 유형

### 2.2.1 문자를 사용하는 임의규정

알파벳문자나 부호를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려는 특색을 강조하는 것이다. 860.1-868에 있는 임의규정은 스페인어로 된 문학을 머릿글자를 사용해서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칠레의 문학은 Ch860에, 콜롬비아는 Co860, 멕시코는 M860, 스페인은 S860이 된다.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하려는 주제를 배열(排列)순서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한다.

### 2.2.2 간략화된 기호를 사용하는 임의규정

간략화 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짧은 번호를 배정하고,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배열되게 하는 임의규정이다. 앞에서 말한 061이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 2.2.3 알파벳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알파벳순 배열은 000류에서 많이 제시되는데, 예를 들면 051-059 각 언어로 된 일반 연속간행물에서는 연속간행물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게 하는 임의규정에 제공된다.

### 2.2.4 연대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3) Joan S. Mitchell,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3/4) (1995): 93.

연대순 배열은 796.48 올림픽 게임, 796.98 동계 올림픽 게임과 같이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쓰일 경우 임의규정으로 배열할 수 있게 한다.

## 3. 임의규정을 적용한 한국 관련 항목의 재전개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임의규정 중에서 자국 우위(local emphasis)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 재 전개해 보고자 한다.

DDC에 있는 임의규정에서 자국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방법과 숫자로 된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자를 사용할 경우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서가 배열이나 목록카드의 배열에서 구별이 어렵고, 개가 제일 경우 도서관 직원 외에 열람자도 책을 찾고 되짚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복잡한 배열법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DDC의 장점인 숫자만으로 구성된 단일분류기호의 단순성이 그 빛을 잃을 수 있다.<sup>4)</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숫자만을 사용한 임의규정만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 3.1 보조표의 전개

#### 3.1.1 Table 5 인종·민족·국가군 세구분표

한민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T5의 -1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957에 있던 한민족이 -11에 올 수 있다. 이 임의규정이 선택되면, -1에는 동양 3국의 민족이 오게 되고, 이 번호에 있던 북미의 민족은 -2에 통합된다.

- 1 Far East Asia
- 11 Korean
- 12 Chinese
- 13 Japanese
- 2 North American, British English Anglo-Saxons

#### 3.1.2 Table 6 국어구분

한국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1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957에 있던 한국어가 -11에 올 수 있다. 이 임의규정으로 -1에는 동양 3국의 언어가 오고, 이 번호에 있던 인도-유럽어는 -91 동인도-유럽 및 켈틱어(East Indo-European and Celtic languages)에 통합된다.

- 1 Far East Asia native languages
- 11 Korean

4) 이계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 (上)," 『국회도서관보』, 4(8) (1967): 13.

- 12 Chinese
- 13 Japanese
- 2 English and Anglo-Saxon languages
- 91 Indo-European languages, East  
Indo-European and Celtic languages

### 3.2 주류별 전개

#### 3.2.1 000 총류

총류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016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030 일반 백과사전에 서는 039.957에 있던 한국 백과사전을 임의규정 B를 이용해서 031.1에 재 전개할 수 있다. 이 때 031에는 동양 3국의 백과사전이 오고 이 번호에 있던 미국 백과사전은 032에 통합된다.

- 030 General encyclopedias
- 031 Far East Asia
  - .1 Korean
  - .2 Chinese
  - .3 Japanese
- 032 American and English

이와 같은 방법으로 050, 060, 070, 080에서 임의규정을 적용하면 그 결과는 위의 결과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000 총류에서의 재 전개

주	제	Prefer	Option
General encyclopedias	in Korean	039.957	031.1
	in Chinese	039.951	031.2
	in Japanese	039.952	031.3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Korean	059.957	051.1
	in Chinese	059.951	051.2
	in Japanese	059.952	051.3
General organizations	in Korea	068.519	061.1
	in China	068.51	061.2
	in Japan	068.52	061.3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Korea	079.519	071.1
	in China	079.51	071.2
	in Japan	079.52	071.3
General collections	in Korean	089.957	081.1
	in Chinese	089.951	081.2
	in Japanese	089.952	082.3

#### 3.2.2 100 철학 및 심리학

한국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181.1-.9에 있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면, 181.119에 있던 한국의 철학을 181.11에 분류할 수 있다. 임의규정 B가 선택되면 181.1에 있던 극동·남아시아 철학(Far East and South Asia philosophy)중 남아시아(South Asia)는 181.9로 옮겨진다.

- 181 Oriental philosophy
- 181.1 Far East philosophy
  - .11 Korea
  - .12 China
  - .13 Japan
- 181.9 South Asia, philosophy of other areas of Orient

#### 3.2.3 200 종교

종교 류에 있는 임의규정 중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분류하기 위해 292-299에 5개의 임의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임의규정들은 모두 하나의 종교만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수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교만을 강조하도록 제시된 임의규정을 이용해서는 한국의 종교를 재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DDC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2.4 300 사회과학

300s에서 한국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들은 Table 2의 번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번호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배열해서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한다. 한국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303.4821-.4829, 327.3-.9, 337.3-.9, 341.0266, 341.0268, 378.4-.9, 382.091, 382.093-.099, 382.93-.99에 있는 임의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임의규정 적용 시, 구체적인 번호를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과 관련된 국가로 프랑스를 예로 들어 나타내 보면 <표 3-2>와 같다. 382.091 일반 지역, 지방, 장소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commerce of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은 국가가 아닌 일반 지역이므로, 한국과 관계된 지역으로 프랑스 대신 Table 2에서 -1724 개발도상국을 예로 들어보았다.

<표 3-2> 300 사회과학에서의 재 전개

주	제	Prefer	Option
Culture exchange between Korea and France		303.482440519	303.482519044
Foreig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327.440519	327.519044
Foreig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337.440519	337.519044
Treaties between in Korea and France		341.0266440519	341.0266519044
Cases involving Korea and France		341.0263440519	341.0268519044
Trade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nations		382.0917240519	382.0951901724
Trade between Korea and France		382.09440519	382.09519044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France		382.9440519	382.9519044

### 3.2.5 400 언어

410에 있는 임의규정 A를 이용하면, 495.7에 있던 한국어가 411에 재 전개될 수 있다. 이때 410에서 419에 있던 언어학은 400으로 옮겨진다.

- 400 Linguistics
- 410 Far East Asia
- 411 Korean
- 412 Chinese
- 413 Japanese
- 420 English and Old English(Anglo-Saxon)

### 3.2.6 700 예술

700s에서는 708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 (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of fine and decorative arts)에서 708.1-.9에 있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면, 708.9519에 있던 한국의 회화와 장식예술에서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이 708.11에 재 전개 될 수 있다. 708.1에 있던 북아메리카 지역은 708.97에 옮겨지게 된다.

- 708 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of fine and decorative arts
- 708.1 Far East Asia
  - .11 Korea
  - .12 China
  - .13 Japan
- 708.2 British Isles England
- 708.97 North America

그리고 750 회화(Painting and paintings)에서 759.1-.9에 있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면, 759.1에 동양 3국의 회화를 두고 759.9519에 있던 한국화를 759.11에 한국화를 재 전개 할 수 있다. 759.1에 있던 북아메리카 지역은 759.97로 옮겨진다.

- 750 Painting and paintings
- 75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 759.1 Far East Asia
  - .11 Korea
  - .12 China
  - .13 Japan
- 759.2 British Isles England
- 759.97 North America

### 3.2.7 800 문학

800s에서는 810-890에 있는 임의규정 중 임의규정 A를 이용해서 895.7에 있던 한국 문학을

811에 재 전개 할 수 있다. 810에는 동양 3국의 문학이 오고, 이때 810에 있던 미국문학은 820에 있는 영국문학에 통합된다.

- 810 Far East Asian literatures
- 811 Korean
- 812 Chinese
- 813 Japanese
- 820 American, English and Old English (Anglo-Saxon)

### 3.2.8 900 지리 및 역사

900s에서는 909.04 민족, 인종, 국가군의 역사 (History with respect to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해서 909.004957에 있던 한민족의 역사를 909.0411에 재 전개 할 수 있다. 여기에 -11의 번호는 Table 5에서 임의규정을 이용해서 한민족을 -11에 재 전개한 번호이다.

- 909.04 History with respect to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 909.0411 Korean
  - .0412 Chinese
  - .0413 Japanese

DDC는 현대 국가의 역사를 분류하도록 940에서 990의 번호를 배정하고 있고, 한국의 역사는 951.9이다. 이 번호는 951 중국 및 고대 지역에서 다시 세부분된 번호로, 우리 나라에서 이 번호를 이용해서 한국사를 분류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DDC에는 각 국가의 역사부분을 재 전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새로운 임의규정의 도입이 요망된다.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DC에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제 공되는 임의규정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장 최근에 나온 21판의 임의규정을 이용해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전개 시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200 종교류에서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있는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900 역사 및 지리류에서 자국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